

LOCAL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무안갯벌서 ‘웰니스 관광’ 온몸으로 즐긴다

해남, 특별한 추억여행 선사
관광지 8곳 스탬프 투어 진행

해남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땅끝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재미있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 ‘땅끝 한 바퀴! 어디 어디 가봤니?’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최남단을 대표하는 해남 땅끝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인근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며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탬프는 세계의 땅끝 공원, 땅끝 탐, 땅끝 스카이워크, 땅끝마을 입구 포토존, 땅끝 모노레일, 땅끝 조각공원,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 매향광장 등 총 8곳에 설치돼 있다.

관광객들은 필수코스인 세계의 땅끝 공원을 포함해 5곳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투어가 인정된다. 완주한 관광객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군 관계자는 “땅끝 관광지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어우러진 해남의 대표 명소로,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성취감을 더하고,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하늘이 내린 광양쌀’ 출시
윤기·찰기·품미 등 우수

광양농협은 2025년산 햅쌀 ‘하늘이 내린 광양쌀’을 최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하늘이 내린 광양쌀’은 광양읍 세풍 간척지 계약재배단지에서 재배된 것으로, 지난 5월 첫 모내기를 거쳐 이달 5일 수확을 마친 뒤 8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판매가는 5kg 한 포에 2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광양농협은 이 쌀이 윤기가 곱고 찰기가 뛰어나 밥맛이 탁월하며,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부드럽고 고소한 품미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확을 통해 고품질 햅쌀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협 측은 추석 차례상 제수용은 물론 명절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은 “광양쌀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jin@gwangnam.co.kr

군, 13~21일 ‘무안항토갯벌축제’ 50여 체험 프로그램
평일 상설·주말 운영…“국내 최고 체험명소 자리매김”

무안군이 갯벌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체험형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무안항토갯벌랜드에서 제11회 무안항토갯벌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세상에 없던 놀이터 갯벌에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며, 갯벌과 모험이 결합한 ‘머드벤처(Mudventure)’가 가장돼 50여종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을 선보인다. ‘온종일 체험’과 ‘해적’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50여개의 체험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모험을, 어른들에게는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벤트형 프로그램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평일에는 무안항토갯벌랜드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 축제로 꾸며진다.



를 감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며, 항토 갯벌과 칠면초가 어우러진 붉은 갯벌 풍경이 장관을 이뤄,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 진행될 무안갯벌 탐방다리 개통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국내 최장목제보행교인 탐방다리를 걸으며 바다 위

축제 기간 낙지광장에서는 대형 에어바운스, 컬러풀 스플래쉬 물총놀이, EDM 파티 등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즐거움을 주고, 생태과학관에서는 평소 만나기 힘든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갯벌 바다예술체험’과 감성충만 ‘갯크니 존’이 마련돼 특별한 휴식을 제공한다.

또 마끝마끝 장어잡기 체험, 운저리 바다 낚시 체험, 농계생태체험 등 갯벌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구독자 143만명을 보유한 생물전문 유튜브버인 ‘정브르’의 갯벌 생태 강연과 OX퀴즈 등 교육형 이벤트도 열려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잡는다.

축제장 곳곳에는 해적카페, 해적 포토존, 해적 의상대여 등 특별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관광객이 직접 해적 탐험대가 돼 갯벌크루들과 행사장 일원을 돌면서 보물을 찾는 ‘갯벌크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해적탐험대’가 매일 3회씩 운영돼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한다.

박문재 무안군 축제추진위원장은 “무안항토갯벌축제는 단기형 축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체험형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전국 최고의 키즈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tjdaudwns@



나주시가 최근 제2회 RE100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과 ‘에너지수도 2단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에너지수도 나주’ 실현 구체화 작업 ‘착착’

시, 17~18일 글로벌 에너지포럼…세계적 석학들 참석 예정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2단계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2회 RE100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5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과 ‘에너지수도 2단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12월 출범해 올해로 2기째를 맞은 위원회는 기후, 에너지, 탄소중립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윤병태 시장과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7~18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개최 예정인 나주글로벌 에너지포럼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에너지포럼은 올해 ‘DDD-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분산(Distributed), 직류(DC), 디지털 AI(Digital AI) 등 차세대 전력망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특히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기후·에너지 분야 세계적 석학 토마스 헬러 교수 등 국내외 저명인사가 대거 참여해 기초자치단체 주관 행사로는 이례적인 글로벌 규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에너지수도 나주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이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1단계

에너지수도 조성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위원들은 K-그리드 국가 시범사업 연계 차세대 전력망 선도, 직류산업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기업 생태계 조성, 농업과 AI 융합 에너지정책 강화 등을 제안하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윤병태 시장은 “위원들께서 아낌없이 주신 전문적 조언과 깊은 통찰에 감사드립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발맞춰 글로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에너지수도 2단계를 철저히 준비해 나주가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세계섬박람회 종합지원 TF팀’ 가동
교통·숙박·행사장 조성 등 6개 분야 지원체계 구축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종합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TF팀 첫 회의를 열고 섬박람회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는 6개 국소단장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TF팀은 △총괄지원 △도로교통 △숙박·음식 △행사장 조성 △섬발전지원 △관광문화 및 행사지원 등 6개 분야로 운영되며, 전남도 섬박람회 지원 TF와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행사장 환경 조성, 섬 발전 연계 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건의과제가 논의됐으며, 향후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개막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TF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 만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수시로 점검·논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섬박람회는 여수의 섬과 바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중심으로 전남도와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박람회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화순서 음악 공연·바다분수 함께 즐겨요”

오늘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

화순군은 12일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주 무대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에너지 넘치는 밴드 연주로 무대를 여는 ‘맥킨토쉬’, 웅장한 무대로 분위기를 고조시켜줄 팝페라 그룹 ‘라벨라’와 ‘라비

타’, 대중가요를 부르는 ‘케로미(개인)’, 통기타로 감성적인 선율을 들려줄 ‘위아위안’, 인디밴드팀 ‘OLCY’가 차례로 무대를 장식한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분수대도 가동돼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객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함께 버스킹을 즐길 수 있다.

버스킹은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현재 버스킹 공연팀을 수시 모집 중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